

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성인 환자에서 신조직 검사의 유용성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김형중, 최훈영, 김동기, 김현진, 김현욱, 김범석, 최규현, 한대석, 이호영, 강신욱

목적: 소변 검사상 혈뇨는 흔한 이상소견으로, 성인의 약 5-10%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혈뇨의 원인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요로계를 포함할 정도로 매우 다양한데, 이 중 비뇨기과적 문제가 아닌 경우가 60%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. 이들 환자에서 진단을 위해 신조직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,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도 진단을 위해 신조직 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 없다. 이에 본 연구자들은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신조직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신조직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15세에서 40세 까지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환자 중 신조직 검사를 시행 받았던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, isolated hematuria (proteinuria <0.15g/24h) 또는 microscopic hematuria+proteinuria 두 군으로 나누어 신조직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.

결과: 총 119명의 환자가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로 신조직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, 남자 72명 (60.5%), 여자 47명 (39.5%)이었다. 평균 나이는 26.4 ± 7.2 세이었다. 대상 환자 중 정상 신조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8명(15.1%)이었으며, 비정상 신조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01명(84.9%)이었다. 비정상 신조직 소견으로는 IgA 신병증이 73명(72.3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thin GBM disease 12명 (11.9%), 그리고 minimal mesangiopathy 6명(5.9%)의 순이었다. Isolated microscopic hematuria 환자는 55명이었으며, 이중 39명(70.9%)에서 비정상 신조직 소견을 보인 반면, hematuria+proteinuria 환자 64명 중에서는 62명 (96.9%)이 비정상 신조직 소견을 나타냈다 ($p < 0.05$). 혈뇨의 정도 (현미경하 HPF당 RBC 3-10 vs. 10-20 vs. many)에 따른 신조직 소견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.

결론: 이상의 결과로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환자의 80% 이상에서 신조직 검사상 이상 소견을 나타냈다. 따라서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뇨 환자에서 비뇨기과적 문제가 없을 경우 적극적인 신조직 검사가 환자의 진단, 예후 예측 및 추적관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.